

국내 광기술, 가능성과 잠재력 있어

존경하는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

2006년 병술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지난 여러 해 동안 많은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사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광학기기협회는 우리나라 광학산업의 합리적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교류지원과 산업계간의 유대강화 그리고 이익증진 추구라는 목적 아래 1988년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광학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광학산업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 광학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해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학산업계의 정보교환과 홍보를 위하여 발간한 '광학세계'가 지난 11월로 벌써 100호째 발간되었음을 축하드리며, 한국광학기기협회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광학산업 발전에 더욱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이끌 원천기술인 광학기술산업은 통신, 정보처리, 정보저장, 정밀가공, 계측, 의료, 우주과학, 방위산업 등 모든 산업분야에 응용 또는 활용되는 등 인류의 복지 및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가장 중요한 산업분야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산업인 광학기술산업은 연구개발이 중시되는 기술집약적인 과학기술산업이며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를 해야 성공하는 산업입니다.

서양에서는 기원전부터 빛의 본질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었으며, 17세기에 Newton과 Huygens가 각각 빛의 입자설과 파동성을 주장한 때부터 광학이 본격적으로 체계 있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 6.25가 끝난 시점을 진정한 광학연구의 시작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광학 연구의 역사는 서양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역사에도 불구



하고 오늘날 이러한 광산업이 발전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광학관련 산업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자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이동통신서비스의 전개, 전자정부 실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정보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광대역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광통신을 포함한

전반적인 광기술 부품시장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협회와 회원사가 공동의 희망을 만들고 두루두루 뿌리시어 희망이 열매를 맺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질 때까지 힘차게 뻗어 나가시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월 1일
한국광학회 회장, 전남대학교 교수 정창섭